

앞을 가리는 천을 준비

*멘트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손길이 느껴졌다
옆으로 모로 누워 자고 있던 내 손 위로 어떤 손이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잠결인양 몸을 뒤척여보았다
그러나 그 손길은 계속되었다
결국은 갑자기 잠을 깬 듯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생활방에서 자는 것이 꺼려졌다. 총여학생회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게 더 편했다
나는 자유로우면서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얼굴을 가리고 뒤로 묶인 채 의자 위에 앉아있다

멘트 끝나면, 천 무대 아래로 내려감(그 사이 천 뒤에서 모든 준비 완료)
-천크기(5마 2폭)

막 팔다리를 움직여본다.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묶여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음악이 흐른다. 맞는 음악을 선정해야 함)
두 명의 사람 등장, 또 두 명의 사람 등장, 총 4명이 여성을 위협하는 듯한 집단적인 동작을 한다. (4명은 흰색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상태, 그러나 눈은 둘러 있다)
움직이면서 이제는 팔과 다리까지 묶어버린다.
(효과음 : 피해자 유발뿐 아니라 동종의 소리가 들린다)
한참 둘다가 여성의 가려진 얼굴의 천을 찢어낸다
이제는 몸이 묶인 채 얼굴이 드러난 상태이다.
묶인 팔로 얼굴을 가리려 안감힘을 쓴다.
그러다가 뒤로 쓰러져버린다.
여성의 짙막한 멘트 이어지고 퍼포먼스 마무리!

*멘트

내가 뭘 잘못했어?(소리지르듯 짧게 외친다.)

*멘트

(음악이 없이 조용한 상태에서 위에서 쓰러진 피해자 가해자들 그대로 멈춰선 상태)
어느날 밤 길을 걸었다
길은 한적했다 조용한 밤길이었다
너무나 조용해 부는 바람이 스산하게 느껴지던 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주변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지나 않을까 너무나 불안했다. 걸음을 계속했다
사람을 밟고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며 운동을 하는 내가
그 날 밤 남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너무 지나친 피해의식일까?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날 밤 그 으악한 느낌, 그 공포는 무의식 중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폭력, 강간 당한다고 해도 그것 만으로 사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며 눈 깜짝 안하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여성운동을 하며 그런 마음을 더 다부지게 먹고 있는 내가..

★★★바로 정치연설자 등장해서 퍼포먼스를 정리해주며 정치연설 진행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음악을 찾아보자)

*멘트(배경음악으로 무엇이 좋을까?)

일제 때 남부여대하며 조국산천을 뒤로 하고 불렀던 우리 민족의 아리랑
얼마나 많은 필박을 받고 우리 민족은 살아왔던가
여성들은 어떠한 것인가
독립운동에 남편을 보내고 모든 걸 챙기면서도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활동을 찾아나섰던 여성들
그래서 반일부녀회도 여성중대도 빨치산 여성들도 모두
배우지 못하고 더 많이 차별받기 때문에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 자체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섰던

그 걸음들, 한번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던 그 마음들
그래도 그 해방은 진정한 해방은 아니었지 다시 미제가 이 땅을 지배했으니
우리들의 힘으로 건설하려 했던 조국은 멀어져버렸어
2000년 6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는 약속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해방의 기회가 왔어
여성에게도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6월 15일은 올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이지
우리 민족의 아리랑 부르며 6.15 민족통일대추전 성사하자!
여성의 힘으로 아리랑 선을 더욱 아름답게 부르며 민족의 통일 앞당기자
-대 손 보아야 할, 더 짧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을 것인가

멘트 하는 동안에 카드섹션 등장 자리잡고(의자도 필요-6개)
(카드섹션 4줄 스케치북 12개-위아래 6개씩)
(카드섹션의 그림에는 무엇이 좋을까?)

6.15 아리랑에 맞추어 춤을 춘다(3분 36초)
(3명이 무대위에 등장해서 춤을 춘다)
(카드섹션 함께 움직이고)
(한복을 만들고 분홍색 혹은 꽃자주색 보라색을 대어준다)

★★★아리랑 관람 결의, 민족통일대추전 준비위 결성(의장님께서 발인)
취지 설명하고 결성선언문 읽기

사회자 발인: (앞의 관 정리해주는 발언하며) 영남대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중우회의 축하공연으로 의장님 올림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연 진행
마치면 바로 내려가고 신디 반주 바로 다음.

여기모여 노래를 부름
(무대 앞에 있는 사람, 관객과 함께 있는 사람, 근처에 나타나 비슷한 것 위에 있는 사람, 3명이 기본 더 많은 것 좋고, 7기 의장님도 함께-무선 마이크 필요)
(1절까지는 율동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부르는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래 부르고 노래 간주 흐르는 동안 멘트하면서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옴, 율동하는 사람들은 무대 아래에서 진행.)

*멘트

여기모여 우리 이 길을 걷겠습니다.*(두 번 더 반복-각자 한번씩 외치는 것이죠.) 전여대협 의장님과 함께, 의장님을 중심으로 올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8기 전여대협 의장님과
길동무되어 가겠습니다.
(공연 하기 전에 앞 뒤로 번갈아 가며 학우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함)
(특에 앞뒤로 붙이든지 옷을 그렇게 만들든지 함)

길동무 율동을 진행
“의장님 사랑해요.”
(구호패킷 만들어서, 율동을 하는 과정에 들고 흔들기)

(율동 마치면 무대 아래서 사회자) 전여대협 의장님을 전여대협 진군가 부르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중간 쯤 전여대협 총기부 무대결계를 덮으면 의장님 무대 위로 올라옴, 중상들과 함께 서여대협에서 준비(사탕 목걸이, 과자, 여름 옷 등 등)한 것들 노래 끝나면 바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전해드림.
중상들 발인 짧게 진행,
(의장님 발인 중 의장님 소개하면 그 때 다른 지역에서 준비한 선물 드림)
의장님 출범선언문 낭독

마지막에 다 같이 부르는 노래와 율동 진행하며 마무리
부 것으로 할 것임기

<순서>

사전마당

- 노래배우기 및 율동배우기
- 항공대 부회장님의 제즈댄스

본행사 시작

축사(천막을 하나 빌릴까)

- 범민련 선생님들
- 여연
- 전여농
- 여성노조(시그네틱스 노동자)
- 반미여성회
- 대변인 동, 북부(우리 하나되어 율동 부탁)
- 여학생회, 소모임 뽀내기 마당
- 경희대 실천단 모범총화
- 광주대 카드섹션
- 대경
- 부경
- 경인

퍼포먼스

- 반성폭력 퍼포먼스

정치연설

- 반성폭력 운동의 의의와 전환적 국면 창출 결의
- 형상극
- 아리랑 관람 및 6.15 민족통일대추전 성사 형상극
- 정치연설
- 아리랑 관람 결의 및 6.15 민족통일대추전 준비위 결성
- 축하공연
- 영남대 중운위
- 의장응립공연
- 올해 총기치를 대략적으로 포함하도록
- 출범선언 및 의장응립

필요한 것

- 신디와 신디를 칠 수 있는 사람
- 제목 플랑
- 걸개
- 소품
- 카메라
- 캠코더

17가 90cm,
17가 110cm.

9) 23명
[장자사]

160
40 120cm.

80cm
160cm

3
400cm
9 (b) dt.

2 [b] [60t]

110t. 120t.

100t
110cm 1/4, 10~120t.

장자사, 반항, 부하,
[장자사]

<순서>

사전마당

- 노래배우기 및 율동배우기
- 항공대 부회장님의 제즈댄스

본행사 시작

축사(천막을 하나 빌릴까)

- 범민련 선생님들
- 여연
- 전여농
- 여성노조(시그네틱스 노동자)
- 반미여성회
- 대변인 동, 북부(우리 하나되어 율동 부탁)
- 여학생회, 소모임 뽀내기 마당
- 경희대 실천단 모범총화
- 광주대 카드섹션
- 대경
- 부경
- 경인

퍼포먼스

- 반성폭력 퍼포먼스

정치연설

- 반성폭력 운동의 의의와 전환적 국면 창출 결의
- 형상극
- 아리랑 관람 및 6.15 민족통일대추전 성사 형상극
- 정치연설
- 아리랑 관람 결의 및 6.15 민족통일대추전 준비위 결성
- 축하공연
- 영남대 중운위
- 의장응립공연
- 올해 총기치를 대략적으로 포함하도록
- 출범선언 및 의장응립

필요한 것

- 신디와 신디를 칠 수 있는 사람
- 제목 플랑
- 걸개
- 소품
- 카메라
- 캠코더